두산 외국인 타자 잔혹사 지우다

페르난데스, 2연속경기 홈런…“복덩이일세”

키움전 4안타·타율 0.440 리그 1위
최주환·오재원 공백 완벽하게 메워

지난해 두산 베어스는 페넌트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4번 김재환이 부상을 당한 한국시리즈에서 SK 와이번스에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정규시즌 때는 국내 타자들의 활약에 가려 그 공백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한국시리즈 무대에서는 외국인 타자가 없다는 점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리그 정상급 홈런타자 김재환이 전력에서 빠지면서 그 공백은 더 커졌고 화력대결에서 SK에 완패하며 우승컵을 내줬다.

올 시즌을 앞두고 두산은 지난해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외국인 타자 스카우트에 유독 공을 들였다.

지난 시즌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한 점에 매력을 느껴 영입했던 지미 파레디스와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다고 기대했던 대체 외국인선수 스캇 반 슬라이크 모두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KBO리그 투수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 파레디스는 단 21경기에서 OPS(출루율+장타율) 0.443으로 침묵했다. 교체 투입된 반 슬라이크는 13경기에서 OPS 0.436으로 고개를 숙였다. 두 타자가 함께 기록한 홈런은 2개, 타점은 8개 뿐이었다.

노련한 두산 스카우트 팀은 배트 컨트롤이 뛰어나 약점이 적은 유형의 타자를 찾았고 올 시즌 호세 페르난데스(31)와 손을 잡았다. 삼진 비율이 낮고 2018시즌 트리플A에서 OPS 0.9이상을 기록한 점을 보고 실패확률이 적다고 판단했다.

시즌 초반 결과는 성공적이다. 페르난데스는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상위권 맞대결에서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 1~4~5회 연속 안타를 터트리며 팀의 9-3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특히 2연승을 달리고 있던 키움 선발 안우진을 3타석 연속 안타로 흔들며 경기 초반 기선을 제압했다.

두산 베어스 호세 페르난데스(왼쪽)가 2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 5회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5호 홈런을 때린 뒤 박건우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고척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1회 첫 타석부터 안우진의 커브를 받아쳐 안타를 쳤고 4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빠른 포심 패스트볼을 때려 중전안타로 출루했다. 페르난데스의 안타를 시작으로 두산 타선은 4회에만 5안타 4득점을 올리며 승기를 잡았다.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5호 1점 홈런으로 승부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KIA 타이거즈전에 이은 2연속경기 홈런이다.

이날 5타수 4안타(1홈런) 1타점 2득점으로 경기를 마친 페르난데스는 시즌 타율을 0.411에서 0.440까지 끌어올렸다. 이날까지 리그 타율 1위 기록이다.

두산은 중심타자 최주환이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제외된 상태고 오재원도 깊은 타격부진으로 1군에서 빠졌지만 페르난데스가 강한 2번으로 맹활약하면서 시즌 초 선두 자리를 좀처럼 놓치지 않고 있다.

페르난데스는 경기 후 “KBO리그에서 처음으로 4안타 경기를 했다. 홈런은 열심히 안타를 치다 보면 따라오는 거라 생각한다. 매일 매일 더 많은 안타를 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더 노력하겠다”고 기뻐했다.
고척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키움 안우진

천적 ‘곰타선’에 또 안우진 3연승 실패

두산전 6이닝 8피안타 7실점 패전

리그가 주목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의 영건 안우진(20)이 ‘천적’ 두산 베어스 타선을 넘지 못하고 시즌 3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안우진은 23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두산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95개의 공을 던져 8피안타(1홈런) 2볼넷 4탈삼진 7실점을 기록하고 팀이 3-9로 지면서 패전 멍에를 썼다.

안우진은 10일 KT 위즈전 6.2이닝 무실점, 16일 삼성 라이온즈전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즌 평균자책점을 2.52까지 낮췄고 피안타율도 0.223을 기록하는 등 무결점 선발투수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우진은 지난해 포스트시즌에서 ‘불펜 에이스’로 활약했고 올해 본격적인 풀타임 선발투수로 변신했다. 한국 프로야구는 장기간 우완 정통파 선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리그 전체의 기대가 컸다.

시즌 초반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과 낙차 큰 슬라이더를 앞세워 이에 호응했지만 유독 두산에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던 3월 28일 두산을 상대로 5이닝 동안 5안타 5볼넷으로 4실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다.

이날도 1~3회를 1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4회 2번 호세 페르난데스를 시작으로 박건우~김재환~오재일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위기에 빠졌다. 6번 박세혁을 2루수 땅볼로 잡았지만 7번 김재호에게 다시 2루타를 맞으며 4회에만 4실점했다. 5회 페르난데스에게 높은 코스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다 추가 1점 홈런을 허용하기도 했다.

안우진은 지난 시즌에도 두산과 기억이 좋지 않다. 한 경기 맞대결을 펼쳐 4이닝 동안 8실점으로 무너졌다. 한 계단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산과의 악연을 끊어내야만 하는 안우진이다.
고척 | 이경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이우성의 천금 득점 NC 다이노스 이우성(앞)이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원정 경기 9회 2사 2·3루 상황에서 이원재의 내야 안타 때 상대 실책을 틈타 3루에서 홈으로 파고들고 있다. 결과는 세이프. NC가 4-3으로 이겼다.
수원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3경기 10S…‘제로맨’으로 거듭난 원종현

〈NC〉

KT전 9회 등판 1이닝 무실점 활약

첫 풀타임 마무리 시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이다. 첫 등판에서 다소 삐걱댔던 원종현(32·NC 다이노스)이 ‘제로맨’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존재 덕에 NC의 뒷문은 튼튼하다.

NC는 23일 수원 KT 위즈전에서 4-3으로 승리했다. 9회초 2사까지 2-3으로 뒤졌지만 볼넷과 안타 3개, 상대 실책을 묶어 역전에 성공했다.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었지만 당장 9회말 수비가 문제였다. 급히 몸을 푼 원종현은 평소처럼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 마운드에 올랐다. 1사 후 안타를 허용했지만 무실점으로 게임을 매조지했다.

2006년 LG 트윈스에 입단한 뒤 1군을 밟지 못하고 방출됐던 그는 2013년 NC 유니폼을 입고 기회를 다시 얻었다. 그리고 1군 데뷔 첫해인 2014년 73경기에서 5승 3패1세이브11홀드, 평균자책점 4.06을 기록하며 확실히 눈도장을 받았다.

NC 원종현

그러나 2015년 대장암 진단을 받으며 한 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동료들은 그의 구속인 ‘155km’을 모자에 새기며 쾌유를 기원했다. 원종현은 한 시즌 만에 돌아와 2016년부터 특유의 위협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중간계투로 꾸준함을 보였지만 마무리 투수는 낯선 보직이었다. 이동욱 NC 감독은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캠프를 마친 뒤 그를 ‘클로저’로 낙점했다. 배짱과 경험, 구위 모두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원종현도 “40세이브가 목표”라고 패기를 숨기지 않았다.

첫 등판은 아쉬웠다. 3월 26일 KT 위즈전에 선을 보였지만 1이닝 2실점으로 세이브에 실패했다. 이후부터는 ‘미스터 제로’다. 이후 13경기에서 13.1이닝을 소화하며 10세이브를 기록했다. 이 기간 세이브 성공률은 100%다. 조상우(키움 히어로즈)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인 두 자릿수 세이브 고지를 밟은 것도 그다. 원종현의 존재 덕에 NC의 뒷문은 튼튼하다.
수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대전·대구 우천 취소…삼성 원태인 26일 첫 선발

23일 게임브리핑

●…23일 대전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던 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 SK 와이번스-삼성 라이온즈전은 비 탓에 열리지 못했다. 우천 취소된 이날 경기는 추후 편성된다.

●…KIA 타이거즈가 잠실 LG 트윈스전에서 2-9로 패해 최근 7연패를 기록했다. 선발 양승철이 3이닝 6실점의 부진한 모습으로 팀 반등을 이끌지 못했다. 볼넷만 6개를 내주면서 스스로 무너졌다. 뒤이어 올라온 이준영도 2.1이닝 3실점으로 부진했다.

●…NC 다이노스 에디 버틀러가 수원 KT 위즈전에 선발등판, 5이닝 6피안타 2볼넷 3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는 96개로 다소 많았다. 3회까지 1안타만 허용하며 38구로 상대 타선을 묶었지만 4, 5회 합쳐 4안타 2볼넷을 내줬다. 결국 5회를 힘겹게 채운 뒤 마운드를 내려갔고, 4연속경기 승리에 실패했다. 버틀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에서 7.1이닝 무실점 쾌투를 펼쳤지만 이후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1군 엔트리에서 빠진 KT 이대은이 NC전에 앞서 첫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13일 대구 삼성전 4.1이닝 3실점 투구 후 이튿날 2군행을 자처했던 그는 말소 기간 내내 1군과 동행했다. 80구를 던졌고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 불펜에서 그의 투구를 유심히 지켜보던 이강철 감독도 “괜찮았다. 본인도 통증 부위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고 했다. 이대은은 한 차례 더 불펜피칭을 소화한 뒤 1군에 복귀해 선발로 나설 예정이다.

●…부상중인 두산 베어스 중심타자 최주환이 5월 이후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두산 김태형 감독은 고척 스카이돔 키움 히어로즈전에 앞서 “부상에서 복귀하면 퓨처스경기에 출전 실전감각을 되찾은 뒤 1군에 올라오는 단계를 밟겠다”고 말했다. 통증이 잦아진다면 4월 말 기술훈련을 시작하고 5월 초 퓨처스리그에 출전 한 뒤 경기감각에 따라 1군 합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주환은 옆구리 부상으로 7일 1군에 합류해 NC전에 출전했지만 통증이 재발해 다음 경기에 뛰지 못했다.

●…삼성 1차지명 신인 원태인이 26일 대구 LG 트윈스전에서 데뷔 첫 선발등판에 나선다. 김한수 감독은 SK전 우천 취소에 앞서 “(최)채흥이가 빠진 자리에 (원)태인이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채흥이가 한 박자 쉬어가야 할 상황이다. 태인이가 준비를 잘했으니 26일에 어떻게 던지는지 보고 향후 보직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태인은 올 시즌 6경기에 구원등판해 1패 2홀드, 평균자책점 2.79(9.2이닝 3자책점)를 기록하며 불펜에 힘을 보탰다. 지난 7일 1군에서 말소돼 선발투수로 보직 전환을 준비했고, 2군 2경기에서 승패없이 평균자책점 3.48(10.1이닝 4자책점)의 성적을 거뒀다.